

남녀 대학생의 음주 문제 위험요인: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의 역할

한 소 영[†] 이 민 규 신 희 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의 음주 문제와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 집단에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의 음주 문제를 잘 설명하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난 모델링,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우울과 불안을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정서적 요인이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연구 모델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사회 인지적 요인은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 모두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적 음주가 음주 문제를 설명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사회 인지적 요인은 양적 음주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음주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만 유의하였다. 즉, 남자 대학생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또래 및 가족들의 모델링이 음주 문제에 큰 영향을 주며, 여자 대학생은 양적 음주가 음주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하였다.

주요어 : 음주 행동, 양적 음주, 음주 문제, 위험요인,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모델링, 우울, 불안, 성차

[†] 교신저자 : 한 소 영,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Tel : 031-219-1963, E-mail : honeycave@ajou.ac.kr

2003년도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03년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이 64.3%로 1986년 48.3%에서 약 20년 사이에 16% 증가하였다. 특이할 점은 1998년에는 한 달에 1~3회 이상 과음을 하는 비율이 남자가 24%, 여자가 3.7%였으나, 2001년도 조사에서는 남자 21.5%, 여자 5.4%로 남성의 과음 횟수가 감소한 반면, 여성의 과음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술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성인여성 가운데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은 1998년 3.1%에서 2001년 10.5%로 3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대학생들의 음주 행동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높은 음주 비율, 폭음, 잦은 음주 빈도 등이 그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의 월간 음주율이 남자 94.4%, 여자 89.2%(보건복지부, 2001)로 성인 음주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미국 대학생 음주율인 86%(US DHHS, 1996; 이원재, 2001에서 재인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연령으로는 성인에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을 성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대학생 음주에 허용적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과중한 입시준비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감과 일탈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감수(risk-taking)의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많은 음주를 경험하게 된다(이원재, 2001). 청소년기의 음주는 상해, 살인, 자살, 교통사고, 성경험, 약물사용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들과 연관되어 있고(Chassin & Delucia, 1996) 이 시기에 습득된 음주 습관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서경현, 정성진,

김성민, 2005; 이원재, 2001).

음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클 수 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시어도 남성보다 쉽게 취하고(김희경 최은숙, 안정선, 2004; Freeza, 1990), 그 결과 과음으로 인한 피해도 남성보다 손쉽게 빨리 입는다. 또한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뇌, 체장 및 간의 손상을 더 쉽게 받으며 매일 음주자의 경우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과음은 생리통, 생리 불순, 조기 폐경, 불임,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희경 등 2004; Nolen-Hoeksema, 2004). 그러므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음주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대학 시기의 음주 행동과 음주의 위험 요소를 탐색하고, 음주 문제 습관 형성을 예방 및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음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심리적 위험요인들이 나타났는데, 그 위험요인은 크게 사회 인지적 요인(모델링, 사회적 지지,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음주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 음주동기), 정서적인 요인(우울, 불안), 그리고 성격이나 성정체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나뉜다. 이중 대학생의 음주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 인지적 요인 중에서는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전 연구에서 음주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경우 음주 행동을 잘 설명하긴 하지만 불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Gilles, Turk, & Fresco, 2005), 심각한 과음을 하는 대학생과 사교적 음주를 하는 대학생을 구분하는데 있어

음주 거절에 대한 자기 효능감보다는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가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 (Morawska & Oei, 2005),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있어서는 다른 인지적 변인보다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음주 동기의 하위변인인 대처 동기는 긴장 감소에 대한 기대에 해당되어, 구성개념상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서경현 등, 2005).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란 음주 행동을 한 후 그 결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if-then' 면에서 음주 행동에 대한 원인적인 역할을 한다(Goldman, Brown & Christiansen, 1991).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는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되어 이후 음주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과 청소년은 학습 후 주변 환경 등의 강화를 통해 개인 지각을 형성하고, 음주 상황을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자신의 기대를 확증시키고, 이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정을 통해 다시 음주를 하게 되는 식으로 강화되어 간다(이유리, 1997). 또한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는 오랜 시간 알코올 사용을 예측하고, 음주를 시작하기 전 아동기에 이미 존재하며, 음주 시작 연령을 예측한다(Goldman, Darkes & Del Boca, 1999). 이민규(1993)는 스트레스와 결과 기대, 사회적 영향이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음주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밝혔다. 또한 홍종필(1989)은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음주 행동을 매개하고 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결과 기대가 대학생의 과도한 음주 및 문제성 음주를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여러 연구에서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는 일관되게 음주량, 음주 문제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변인과 음주 행동을 매개하는 강력한 예측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 인지적인 요인으로 음주행동에 대한 모델링이 있다. 음주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는 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hung, Eun, Li, & Zhang, 1999). 또한 청소년 이후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이 음주 행동에 대한 모델링 효과를 줄 수 있다. Petraitis 등(1995)은 부모, 친밀한 또래의 친구들, 영향력 있는 그 외 다른 역할 모델, 특히 가깝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보이는 알코올 사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나 언급이 알코올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와 모델링이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안경선(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음주 행동,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와 또래의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의 음주 행위, 또래의 음주 태도, 또래 사이의 음주 규범, 또래 사이의 인기도와 청소년의 음주 행동 및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가 유의미한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음주 행위와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에 부모와 또래 모두에 있어 음주 태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승인하는 태도에 의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족과 또래 집단은 음주의 모델로서 작용, 학습 효과를 통하여 음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가족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한 영향력과 더불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모델링 효과를 제공하여 음주의 빠른 시작을 예측하고, 또래 집단은 그 이후 태도 및 또래 문화를 통하여

음주 태도,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음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다른 심리적 변인으로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음주 동기와 음주 문제를 재발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는데(Colins, Leonard & Searles, 1990; Glantz & Pickens, 1992), 이는 스트레스가 유발한 우울과 불안 정서를 벗어나기 위한 쾌락 추구 활동에 음주나 흡연과 같은 행동이 포함된다(스트레스 감소 이론)(곽금주, 문은영, 1993; 심혜원, 1999)이나, 음주 행위가 불안, 우울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주요 증상들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자기-치료 가설’ 등으로 설명된다. 기분 장애와 불안 장애가 알코올 중독과 공존 이환이 많다는 여러 연구와 더불어, 불안 또는 초조 기분과 음주량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인 연구(Stein, Goldman, & Del Boca, 2000)에서도 음주 행동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이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대학생들의 음주 행동의 위험 요인과 결과를 살펴보면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이다. 음주 행동 차원에서 보면 대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에게서 대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술을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은 음주 문제를 보인다(Hilton, 1987; Nolen-Hoeksema, 2004). 성차는 생물학적인 차이 외에도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올 수 있다.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음주 행동의 경우 전형적인 남성적인 문화라는 인식이 깊다. 이러한 영향은 사회적 인식이나 기대의 영향을 받는 사회 인지적인 위험 요인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

해 음주 후 이완을 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hsenow, 198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음주를 관련지어, 최명숙(2002)은 사회적으로 남성 음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음주 행위를 유도한다고 해석하였다. 정서적 요인 또한 성차가 있을 수 있는데, King과 동료 연구자들(2003)은 여성 알코올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우울과 불안 증상을 더 크게 보임을 보고 하였다. 반면, Swendsen과 동료 연구자들(2000)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기분 중에서는 초조함이 알코올 소비를 증가시키며 특히 특질 불안이 높은 사람, 알코올중독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Parry와 동료 연구자들(1974)은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 기대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 스트레스나 정서적 어려움을 외현화로 해소하는 남성들이 대처방략으로써 음주를 시도하기 때문에, 남성에 있어 음주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성차는 연구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경험적으로 정서적 요인이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사회 인지적, 정서적 음주 위험 요인들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찾기 위해 연구자가 가정한 가설적인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모델에 따르면 사회 인지적 요인은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 둘 다 잘 설명하고 정서 관련 요인들은 음주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양적인 음주가 사회 인지적 요인을 매개하면서 음주 문제를 설명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인지적 요인의 경우, 연구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음주에 대한 결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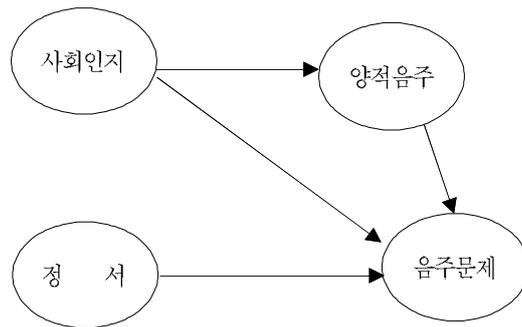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델

대가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 모두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거의 음주력이나 모델링의 영향과 상호작용, 또는 인과 관계를 이룬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어(안경선 1996; 이양원, 1995; Chung 등, 1999),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 두 가지를 모두 잘 설명한다고 보았다.

정서적 요인의 경우 양적 음주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음주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음주 외의 다른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및 정서적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 음주 행동이 일어나지 않으나, 일단 음주를 대처 전략으로 선택하면 음주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강하다는 면에서 음주 양보다는 음주 문제를 더 잘 예측하기 때문이다(이유리, 1997). 선행 연구에서 정서적 요인이나 스트레스가 양적 음주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으나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민규, 1993).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가설적인 음주 모델의 위험 요인의 설명력과 그 경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음주 행동의 특성상 성별에 따른 음주 정도 및 음주 문제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

려하면서 동시에 위험 요인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음주를 시작하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남녀 학생의 음주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하여 비교하고, 성별에 따라 상이한 음주 위험 요인을 구분하여 음주 문제 예방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세웠다.

연구 문제 1) 성별에 따라 음주 위험 요인과 음주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성별에 따라 연구 모델에서의 요인들이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영향력과 경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방 법

대 상

조사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인 A대학과 O대학의 대학생으로, 배포한 50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416부에서 무응답이 2명, 무성의 응답이 4명으로 제외되어 410명이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무응답 2명(0.5%), 여

자 189명(46.1%), 남자 219명(53.4%)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하 17세에서 최고 42세($SD = 2.689$)였으며, 평균 연령은 21.25세였다.

연구 도구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Brown(1980)과 Rohsenow(1983)가 제작한 알코올 기대 척도를 참고하여 이민규(1993)가 제작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인 기대 요인, 사회적 촉진 요인, 긴장 감소 요인, 성 기능과 공격성의 향진 요인 및 자기 주장성 증대요인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0점에서 4점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68이었다.

모델링

이민규(1993)가 제작한 척도와 이유리(1997)가 제작한 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또래 모델링과 가족 모델링을 측정하는 6점 척도 2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우울

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Beck 등(1967)이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로 개발한 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정서적, 생리적, 인지적, 동기적 증후군 등을 포함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0점에서 63점으로 10점 이상이면 가벼운 우울 상태, 16점 이상이면 중한 우울 상태, 24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 상태로 본다. 이영호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904였다.

불안

불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Spielberg(1970)가 개발한 STAI를 김청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상태 불안과 특질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단계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마다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가끔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는 4점으로 채점되며, 역코딩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질 불안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900이었다.

양적 음주

이민규(1993)와 이양원(1997)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며, 평상시 음주량을 묻는 1문항, 최고 음주량을 묻는 1문항, 한 달 중 음주하는 날짜 수를 묻는 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음주량의 기준은 맥주를 병 단위로 표시하도록 했다.

음주 문제

음주와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와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김자성, 이철원 등(1989)이 제작한 주정중독 선별 검사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했던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 12문항 척도이다. '예'와 '아니요'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예'로 응답한 총 문항수로 알코올 관련 문제 행동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702였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음주 위험 요인과 음주량의 차이 분석

음주 위험 요인과 음주 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가족 모델링, 또래 모델링, 우울, 불안, 주량, 음주 빈도, 음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차이검증 결과 가족 모델링, 불안, 음주량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모델링에서 남자는 평균 2.11점, 여자는 평균 2.69였으며, $t(405) = -3.389, p < .01$ 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으로부터의 모델링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t(398) = -5.401, p < .001$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은 $t(315.178) = 4.908, p < .00$, 음주 문제 $t(382.665) = 2.599, p < .05$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량과 음주문제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빈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음주 문제의 차이를 보다

표 1. 성별에 따른 음주 위험 요인과 음주 행동의 차이 분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음주결과기대	남	218	31.940	6.679	1.810
	여	188	30.740	6.709	
가족모델링	남	218	2.110	1.775	-3.389**
	여	189	2.690	1.679	
또래모델링	남	217	2.950	1.634	0.017
	여	188	2.950	1.351	
우울	남	219	19.870	13.033	1.265
	여	188	18.260	12.553	
불안	남	217	23.170	9.625	-5.401**
	여	183	28.460	9.911	
음주량	남	212	3.320	3.588	4.908**
	여	186	1.950	1.756	
음주빈도	남	215	5.710	4.711	1.221
	여	188	5.160	4.219	
음주 문제	남	212	2.940	2.410	2.599**
	여	185	2.330	2.250	

(* $p < .05$, ** $p < .01$)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음주량과 상관성이 높은 음주 문제의 성차를 음주량을 배제하고 알아보았다. 음주량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주량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가 $F(1, 394)=3.949, 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모델 검증

성별에 따른 연구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값 외에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Nonnormed fit index(NN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 오류를 측정하는 Comparative fit index(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NNFI, C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3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08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앞서 제시한 음주 행동 모형을 분석, 적합

도를 비교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사회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양적인 음주와 음주 문제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여 연구 모델로부터 수정된 모델을 이끌어 내고자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대로, 모델 적합도에서 연구 모델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으나 남학생 집단 모델에서는 양적 음주에서 음주 문제로 가는 경로가, 여학생 집단 모델에서는 사회 인지적 요인에서 음주 문제로 가는 경로가 경로 추정치에 대한 표준 오차의 비율로 산정하는 결정비율지수(critical ratio index, CR index)를 보았을 때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경로를 삭제하고 모델을 수정하여 모델 적합도를 다시 살펴본 결과 남학생 집단의 수정된 모델은 $\chi^2(18)=32.564, NFI=0.987, NNFI=0.989, CFI=0.994$ 였으며, RMSEA=0.061로 나타났으며, 여학생 집단의 수정된 모델은 $\chi^2(18)=13.418, NFI=0.994, NNFI=1.004, CFI=1.000$ 였으며, RMSEA=0.000로 모델 적합도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정된 모델이 채택되었다. 남녀 집단에 대한 수정된 모델과 각각의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표 2. 음주 행동에 대한 대안적 요인 모형들에 대한 적합도 평가

모델	$\chi^2(\phi)$	χ^2/df	NFI	NNFI	CFI	RMSEA
1. 연구 모델: 남자	32.563(0.013)	1.915(17)	0.987	0.987	0.994	0.065
2. 수정된 모델: 남자	32.564(0.019)	1.809(18)	0.987	0.989	0.994	0.061
3. 연구 모델: 여자	10.431(0.885)	0.614(17)	0.996	1.005	1.000	0.000
4. 수정된 모델: 여자	13.418(0.766)	0.745(18)	0.994	1.004	1.000	0.000

가설적 모델: 사회 인지적 요인→양적 음주, 음주 문제 / 정서적 요인→음주 문제 양적 음주→음주 문제
 수정된 모델(남자): 사회 인지적 요인→양적 음주, 음주 문제 / 정서적 요인→음주 문제
 수정된 모델(여자): 사회 인지적 요인→양적 음주/정서적 요인→음주 문제/양적 음주→음주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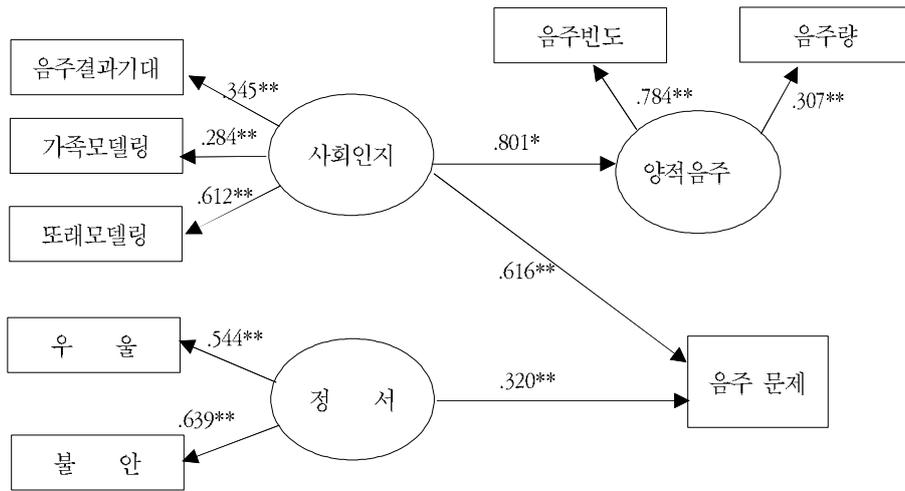


그림 2. 수정된 모델: 남자(*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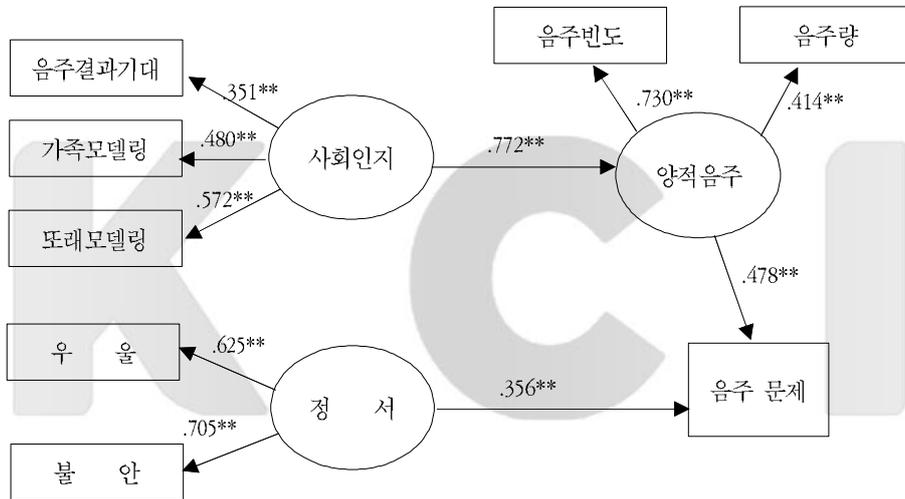


그림 3. 수정된 모델: 여자(* $p < .05$, ** $p < .01$)

요약하면, 첫째, 남학생 집단 모델의 경우 사회 인지적 요인이 양적인 음주를 거쳐 음주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인지적 요인이 음주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양적 음주가 음주 문제를 설명하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 집단 모델의 경

우 사회 인지적 요인이 음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양적 음주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모두에게서 사회 인지적 요인이 양적 음주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정서적 요인은 음주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

표 3. 수정된 모델의 잠재 및 관찰 변인간의 경로계수

예측 변인	결과 변인	표준화된 회귀계수	
		남	여
사회 인지(잠재변인)	양적 음주(잠재변인)	0.801*	0.772**
사회 인지(잠재변인)	음주 문제(측정변인)	0.616**	<i>n.s.</i>
정서(잠재변인)	음주 문제(측정변인)	0.320**	0.356**
양적 음주(잠재변인)	음주 문제(측정변인)	<i>n.s.</i>	0.478**
양적 음주(잠재변인)	음주량(측정변인)	0.307**	0.414**
양적 음주(잠재변인)	음주 빈도(측정변인)	0.784**	0.730**
사회 인지(잠재변인)	음주결과기대(측정변인)	0.345**	0.351**
사회 인지(잠재변인)	가족 모델링(측정변인)	0.284**	0.480**
사회 인지(잠재변인)	또래 모델링(측정변인)	0.612**	0.572**
정서(잠재변인)	우울(측정변인)	0.544**	0.625**
정서(잠재변인)	불안(측정변인)	0.639**	0.705**

(* $p < .05$, ** $p < .01$)

단의 수정된 모델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음주 위험요인들이 대학생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알아 여성과 남성 각각에 맞는 모델을 찾아내고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라 음주 위험 요인과 음주 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음주량과 음주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음주 모델링에 있어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에 대한 결과기대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특히 긴장 완화와 부정적 감정 감소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민규, 1993; Rohsenow, 1983).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 빈도, 음주량이 더 많고,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Hilton 1987; Nolen-Hoeksema, 2004; 서경현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평균 음주 빈도가 한 달 중 평균 남자 5.71일, 여자 5.16일로 성별에 따른 음주 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습관성 음주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음주 빈도가 대학생 집단에서는 성차가 없이 빈번하

며,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음주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족으로부터의 음주 행동 모델링에서 여성이 더 높게 나온 것은 기존 연구에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허용에 대한 가족 문화의 영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큰 것과 관련 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위험요인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였을 때, 남녀 모두에 있어 양적 음주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 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요인은 음주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가 양적 음주의 유의미한 예측치가 된다는 Stacy(1997)의 연구와 알코올 효과의 부정적인 기대가 음주량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이민규(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우울이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음주 행동을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Goldman, Del Boca, & Darkes, 1999; Lang, Patrick, & Stritzke, 1999)와 일치한다. 하지만 최근 Demmel 등(2005)의 정서 상태와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의 연관성 연구에서 부정적인 기분상태에 음주에 대한 긍정적 결과 기대가 더 강해져 음주 행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정서 상태와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 음주 행동과 음주 문제가 좀 더 복잡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음주 위험 요인 모델을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의 경우 사회 인지적인 요인이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적 음주가 음주 문제를 설명하지 못

하였고, 여학생 집단의 경우 사회 인지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음주 문제에 영향 미치지 못하고 양적 음주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취하였다. 성별에 따른 음주 행동에 영향 미치는 상이한 경로는 다양한 견지에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의 차이에서 볼 때, Nolen-Hoeksema(2004)는 여성은 여성 자신의 음주 행동이나 술에 취한 행동에 대해 타인들이 좋지 않게 볼 것이라는 인식이 남성보다 더 높고, 같은 여성이 술에 취한 경우 남성보다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처벌(social sanction against women drinking)'이 존재한다는 여성의 인식 때문인데(Blume, 1991; Gombert, 1988),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 모두에 영향을 주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양적 음주에만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잘 설명해준다. 즉, 여학생은 음주 행동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가 양적 음주에는 영향을 주지만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알코올 효과에 대한 결과 기대가 음주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고(이민규, 1993), 대학생의 음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결과 기대의 변화를 통한 음주 행동의 변화가 여학생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남학생에서만 나타났다는 결과(Wiers, Wood, Darkes, Corbin, Jones, & Sher, 2003)로 미루어 볼 때, 음주에 대한 기대가 성별에 따라 음주량 및 음주 문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양적 음주가 음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여성에게서만 유의하다는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음주량이 같아도 남성보다 혈중 알코올 수준이 더 높고 체내 수분이 적어 더 쉽게 취하기 때문에(이근후 등, 1995; Jones & Jones, 1973) 이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 더 높고, 음주를 통제하기 어려우며(Fillmore, Golding, Leino, Motoyoshi, Shoemaker, & Terry, 1997, Nolen-Hoeseema, 2004, 재인용), 인지적 기능과 운동기능에서 훨씬 더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등(Nixon, 1994) 음주의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여성의 경우 과음을 하면 이로 인한 음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자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남성 알코올 중독자보다 문제해결 및 신경심리 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연구결과(Mann, Batra, Gunthner, & Schroth, 1992)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집단에 있어서 음주 위험요인들이 양적 음주와 음주 문제로 가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단순히 주량을 가지고 논하기보다 주변인들의 모델링이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은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를 바꾸는 치료가 적절하고, 여학생의 경우 이미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 기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의 음주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폐해가 있음을 교육시키거나, 행동적 치료를 시도하여 음주빈도나 음주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녀 모두에 있어 정서적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주로 인한 문제 개입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의 치료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중 가족과 또래의 모델링을 측정하는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으나(이민규, 1993), 문항수가 각각 1문항으로, 음주에 대한 모델링을 신뢰롭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측정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가족과 또래의 모델링이 아니라 가족과 또래의 음주 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지각일 수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심리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를 남긴다. 둘째, 다양한 음주의 위험요인을 다루고는 있지만 대학생 집단을 잘 설명하고 있는 요인들을 선별하고, 모델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미처 포함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다. 여기에는 음주에 대한 자기 효능감(Aas, Klepp, Laberg, & Edvard, 1995), 음주 동기(Cooper, Russell, Skinner, & Frone, 1995),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이유리, 1997; Newcomb & Harlow, 1986), 성격(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 신행우, 1999), 사회적 지지(이유리, 1997)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성차와 관련하여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처벌 이론(Blume, 1991; Gombert, 1988; Keefe, 1994; Winsnack, 1996)이나 성역할(Nolen-Hoeksema, 2004), 성정체성 관련 변인들(신행우, 2004)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검증된 모델의 경로를 절대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회 인지적 요인인 음주에 대한 결과 기대의 경우 연구에 따라 이것이 과거 음주

경험에 의해 발달하는 것인지, 음주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Glantz & Pickens, 1991). 정서적 요인의 경우, 음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Brady & Randall, 1999; King, Bernardy, & Hauner, 2003; Moscato, Russell, Zielezny, Bromet, Egr, Mudar & Marshall, 1997)은 본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요인과 음주 문제는 매우 복합하게 얽혀 이것이 서로의 원인이기도, 결과이기도 하여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살피기 위해서는 중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 (1999). 심리지도 핸드북, 학지사.
- 곽금주, 문은영 (1993).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 김희경, 최은숙, 안정선 (2004). 여대생의 음주 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0(2), 205-216.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의식행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0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의식행태조사.
- 서경현, 정성진, 김성민 (2005). 여대생의 음주 특성과 문제음주자의 음주동기, 여성건강, 6(1), 33-52.
- 신행우 (1999).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신행우 (2004). 여자대학생의 여성성 과잉과 음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693-711.
- 심혜원 (1999). 청소년기 반발심과 문제행동 및 우울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경선 (1996).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음주기대에 대한 부모와 친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이양원 (1995).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충동성 및 음주기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재 (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10(1), 79-96.
- 이유리 (1997). 비행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관한 일 연구-사회 학습 이론 모형과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 (2002). 한국 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 모형의 성별 비교분석, 한국간호학회지, 32(1), 77-8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종필 (1989). 대학생의 술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as, H., Klepp, K., Laberg, J. C. & Edvard, L. (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293-299.
- Bartholow, B. D., Sher, K. J., & Strathman, A. (2000). Moderation of the expectancy-alcohol use relation by private self-consciousness: Data from a longitudi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409-1420.
- Blume, S. B. (1991). Sexuality and stigma: The alcoholic woman.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Special Issue: Alcohol and Sexuality, 15, 139-146.
- Brady, K. T., & Randall, C. L. (1999). Gender Differences in Substance Use Disorders. *Psychiatr Clin Nor Am*, 22(2), 241-252.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 Chassin L., & Delucia C. (1996), Drinking during adolescen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0(3), 175-180.
- Chung, Y .C., Eun, H. B., Li, B., & Zhang, W. (1999). A Cross-Cultural Study of Drinking Behaviors and Perceptions in Korea and Chinese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y Assoc.* 38(2). 317-324.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Dec), 975-990.
- Collins, R. L., Leopard. K. E., & Searles, J. S. (1990). *Alcohol and the Family: Research and Clinical Perspectives*, The Guilford Press.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Frone, M. R. (1992).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39-152.
- Demmel, R. (2005). Alcohol expectancies and current Mood State in Social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10(1), 132-168
- Fillmore, K. M., Golding, J. M., Leino, E. V., Motoyoshi, M., Shoemaker, C., & Terry, H. (1997). Patterns and trends in women's and men's drinking In R.W. Wilsnack, & S. C. Wilsnack(Eds.), *Gender and Alcohol: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pp. 21-48). Piscataway, NJ: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 Frezza, M., DiPadova, C., Pozzato, G., Terpin, M., Baraona, E., & Lieber, C. S. (1990). High blood alcohol levels in women: The role of decrease gastril alcohol dehydrogenase activity and first-pass metabolis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2, 95-99.
- Fromme, K. Katz, E. C. & Rivet, K. (1997). Outcome Expectancies and Risk-Taking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4), 421-442.
- Gilles, D. M., Turk, C. L., & Fresco, D. M. (2005), Social anxiety, alcohol expectancies,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heavy drinking in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 Glantz, M., & Pickens, R. (1992). *Vulnerability to Drug Abuse*, APA Washington D.C.

- Goldman, M. S., Brown, S. A., Christiansen, B. A. & Smith, G. T. (1991). Alcoholism and Memory: Broadening the Scope of Alcohol-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0(1), 137-146.
- Goldman, M. S., Darkes, J., & Del Boca. F. K. (1999) Expectancy mediation of biopsychosocial risk for alcohol use and alcoholism, in *How Expectancies Shape Experience*.
- Gomberg, E. L. (1988). Alcoholic women in treatment: The question of stigma and age. *Alcohol and Alcoholism*, 23, 507-514.
- Hill, S. Y. (2000). Factors Predicting the Onset of Adolescent Drinking in Families at High Risk for Developing Alcoholism, *Biology Psychiatry*, 48, 265-275.
- Hilton, M. E. (1987). Drinking Patterns and drinking problems in 1984: Results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Alcoholism*(181-226). New York: Guilford Press.
- Jones, B. M., & Jones, M. K. (1976). Male and female intoxication levels for three alcohol doses or do women really get higher than men? *Alcohol Technical Report*, 5, 11-14.
- Katz, E. C. , Fromme, K., & D'Amico, E. J. (2000). Effects of Outcome Expectancies and Personality on Young Adults' Illicit Drug Use, Heavy Drinking, and Risky Sexual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1), 1-22.
- Keefe, K. (1994). Perception of normative social pressure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Change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46-54.
- King, A. C., Bernardy, N. C., & Hauner, K. (2003). Stressful events, personality, and mood disturbance: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ics and problem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28, 171-187.
- Lang, A., Patrick, C., & Stritzke, W. (1999). Alcohol and emotional response: A multidimensional-multilevel analysis. In K. Leonard & H. Blane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 2nd Edition (pp. 328-371). New York: Guilford.
- Mann, K., Batra, A., Gunthner, A., & Sctoth, G. (1992). Do women develop alcoholic brain damage more readily than men?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6, 1052-1056.
- Morawska, A., & Oei, T. P. S. (2005), Binge drinking in university students: A test of the cognitive model, *Addictive Behaviors*, 30, 203-218.
- Moscato, B. S., Rusell, M., Zielesny, M., Bromet, E., Egr, G., Mudar, P., & Marshall, J. R.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Problem: A Longitudin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46, 996-974.
- Newcomb, M. D. & Harlow, L. L. (1986). Life Events and Substancer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64-577.
- Nixon, S. J. (1994). Cognitive deficits in alcoholic women. *Alcohol Heath and Research World*, 18, 228-232.
- Nolen-Hoeksema, S. (2004).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for Alcohol

- Use and Proble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81-1010.
- Park, C. K., & Levenson, M. R. (2002). Drinking to cope among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roblems and coping process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486-497.
- Parry, H. J., Cisin, I. H., Balter, M. B., Mellinger, G. D., & Manheimer, D. I. (1974). Increasing alcohol intake as coping mechanism for psychic distress. In R. Cooperstock(ed), *Social Aspects of the Medical Use of Psychotropic Drugs* (pp.119-144). Toronto: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of Ontario.
- Petraitis, J., Flay, B. R., & Miller, T. Q. (1995). Reviewing Theories of Adolescent Substance Use: Organizing Pieces in the Puzzle. *Psychological Bulletin*, 117(1), 67-86.
- Rather, B. C., Goldman, M. S., Roehrich, L. & Brannick, M. (1992). Empirical Modeling of an Alcohol Expectancy Memory Network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174-183.
- Rohsenow, D. J. (1983).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52-756.
- Rose, J. R. (1998). A Developmental Behavioral-Genetic Perspective on Alcoholism Risk, *Alcohol and Youth*, 22(2), 131-143
- Stacy, A. W. (1997). Memory Activation and Expectancy as Prospective Predictors of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61-73.
- Stein. K. D., Goldman, M. S., & Del Boca, F. K. (2000). The Influence of Alcohol Expectancy Priming and Mood Manipulation on Subsequent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106-115.
- Swendsen, J. D., Tennen, H., Carney, M. A., Affleck, G., Willard, A., & Hromi, A. (2000). Mood and Alcohol Consumption: An Experience Sampling Test of the Self-Medication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116-125.
- Thombs. D. L. (1993). The differentiability discriminating properties of alcohol for female and male drink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1, 321-325.
- Wiers R. W., Wood, M. D., Darkes, J., Corbin, W. R., Jones, B. T., & Sher, K. J. (2003). Changing Expectancies: Cognitive Mechanisms and Context Effect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7, 186-197.
- Wilsnack, S. C., & Wilsnack, R. W. (1990). Women and substance abus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1990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4, 46-49.

원고접수일 : 2005.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14

게재결정일 : 2005. 11. 5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Risk factors on Drink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Han, So-young

Lee, Min-kyu

Shin, Hee-Cheon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risk factors on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ing problem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his study attempted to evaluate the fitness of a model composed of social cognitive factors and emotional factors such as family modeling, peer modeling, cognitive outcome expectancy, depression and anxiety, and also to identify the best model for male and female group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model of male group, social cognitive factors significantly predicted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ing problems. However, the direct path from alcohol consumption to drinking problem was not significant, which indicated alcohol consumption was not definitely indicative of drinking problems for male group. In the model of female group, social cognitive factors significantly predicted alcohol consumption, but not drinking problems. Furthermore, alcohol consumption mediated the effect of social cognitive factors on drinking problems. Emotional factors predicted drinking problems significantly in both group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drinking behaviors,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problems, risk factors, cognitive outcome expectancy, modeling, depression, anxiety, gender differences